한국과 일본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

-ＩＳＡ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earch Patterns of Korea and Japan's Library & Information Research through ISA

최 희 곤(Hee-Kon Choi)**

초 록

본 연구에서는 ISA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국가별 즉, 한국과 일본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데이터뱅크인 DIALOG에서 운영하는 문헌정보학분야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ISA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ISA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문헌에서 인용한 문헌을 형태별 / 연도별 및 국내외별로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인용형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문헌정보학의 국제화 및 우리 학문의 연구방향을 제시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into the research pattern of the each country then, Korea and Japan'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ers through the ISA database, to analyze the thesis in various aspects which is included in ISA database. It analyzed such as leading authors production, subjects, journals etc. In addition, the study is to analyze the form of citation of Korea and Japan'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ers by studying the citation written in the thesis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indicate the direction of our study in the future.

키워드: 연구동향, 핵심저자, 생산성, 인용, 인용문헌, IS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eading authors production

---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KRF-2002-075-H00003).

**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hkchoi2727@hanmail.net)

1 서 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기관 평가나 교수 및 연구자들의 연구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제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실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여러 나라의 다양한 주제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된 문헌에 대한 인용문헌 분석 및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비교·분석은, 그들 국가의 당해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수준을 가늠하고 최근 연구동향을 조명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방법이다.

어떤 학문분야에 있어서 국가별 연구동향이나 인용문헌 분석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문헌을 분석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로는 ISA(Information Science Abstracts ; DIALOG File 202)가 있다. ISA는 Information Today, Inc.에서 제작하여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문헌정보학분야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분야의 전세계 300여 학술지로부터 발췌한 학술논문을 비롯하여 단행본, 연구보고서, 회의자료 등에 대한 서지 및 초록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1964년부터 현재까지 약 14만건의 레코드가 수록되어 있고, 연 9회에 걸쳐 데이터를 갱신시키고 있다.

인용문헌 분석 연구는 어떤 학문분야의 연구활동 및 연구동향을 개관할 수 있으며 그 학문의 구조적 특성을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국가간 즉, 한국과 일본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적 측면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없었다. 특히 국가별 연구자들의 문헌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주제 및 인용문헌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ISA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국가간 즉, 한국과 일본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ISA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문헌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대상 논문에서 인용한 문헌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데이터뱅크인 DIALOG에서 운영하는 문헌정보학분야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ISA에 수록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국가별, 즉 한국과 일본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국제학술지 등을 통해 발표한 다양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발표논문의 다각적인 비교·분석 및 인용문헌 분석을 통해서 양 국가 연구자들의 연구동향을 규명함으로써, 나아가서는 이에 따른 바람직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방향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데이터뱅크인 DIALOG에서 운영하는 문헌정보학분야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ISA를 조사대상으로 검색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문헌은 DIALOG의 ISA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002년 9월 31일자로 조사하였다. 참고로, ISA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주제표목(subject heading)을 다음과 같이 18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이 가운데 순수 문헌정보학과 보다 연관있는 분야(*표)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반면 전산학 분야나 정보기술과 관련한 분야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item은 해당 주제분야의 검색된 문헌건수이며, MH는 main heading의 약어이다.

No.	Item	Main Heading
E1	241	MH=ELECTRONIC INFORMATION SYSTEMS AND SERVICES *
E2	218	MH=GOVERNMENT AND LEGAL INFORMATION AND ISSUES *
E3	26378	MH=INFORMATION GENERATION AND PROMULGATION *
E4	24340	MH=INFORMATION PROCESSING AND CONTROL
E5	21335	MH=INFORMATION RECOGNITION AND DESCRIPTION
E6	28667	MH=INFORMATION SCIENCE AND DOCUMENTATION *
E7	1333	MH=INFORMATION SCIENCE RESEARCH *
E8	35355	MH=INFORMATION SYSTEMS AND APPLICATIONS
E9	587	MH=INFORMATION TECHNOLOGIES
E10	511	MH=KNOWLEDGE ORGANIZATION *
E11	36897	MH=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
E12	1060	MH=LIBRARIES AND LIBRARY SERVICES *
E13	285	MH=PUBLISHING AND DISTRIBUTION *
E14	13355	MH=RESEARCH METHODS *
E15	150	MH=SOCIETAL ISSUES
E16	347	MH=SUBJECT-SPECIFIC SOURCES AND APPLICATIONS
E17	450	MH=THE INFORMATION INDUSTRY
E18	269	MH=THE INFORMATION PROFESSION *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상기 주제분야의 문헌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탐색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먼저 순수 문헌정보학과 보다 밀접한 주제분야를 검색한 후 그 결과를 한국과 일본에 국한시켜 검색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ISA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하고 있는 국가명의 표기방법을 모두 표기하였다. 참고로, 여기에서 CA는 Country of author affiliation의 약어로서 저자의 국적을 의미한다.

S1	E1 or E2 or E3 or E6 or E7 or E10 or E11 or E12 or E13 or E14 or E18
S2	CA=KOREA or CA=KOREA (SOUTH) or CA=KOREA, REPUBLIC OF or CA=SOUTH KOREA => 74건
S3	CA=JAPAN => 541건
S4	S1 and S2 => 57건
S5	S1 and S3 => 264건

ISA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문헌정보학분야 문헌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57건, 일본은 264건이 검색되었다. 다시 말하면, 74건 중에 전산학 분야와 정보기술, 정보처리·응용과 관련된 분야는 17건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행태 및 연구동향 규명도 가능 할 것이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인용문헌 분석 연구 중에서 문헌정보학분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먼저 국외의 경우를 보면 Houser(1988)는 정보검색과 계량서지학이 미국 정보학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주제임을 밝혔다. Bracken(1989)은 문헌정보학분야의 13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서지이용법에 관한 187개의 논문이 인용한 인용문헌 총 2,882개를 분석하였다. 이들 중 74.43%가 문헌정보학 관련문헌을 인용한 반면 25.57%는 인접분야를 인용하였으며, 주로 교육학, 심리학, 영문학, 정보학이었다.

Jaervelin과 Vakkari(1990)는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논문에 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연구주제의 분류기준을 크게 전문직, 도서관사, 연구방법론, 정보축적 및 검색 등 11가지 항목으로 대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Powell(1999)은 문헌정보학의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정보학분야와 도서관학분야로 나누어 사용된 다양한 계량적 연구방법론에 대해 개관하였다. 이와 같이, 문헌정보학분야와 관련된 인용문헌 분석 연구는 다소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질·양적인면에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의 경우, 한복희(1977)가 원자력분야를, 박정윤(1978)에 의한 경제학분야의 연구가, 그리고 1980년대는 김태수(1983)에 의한 의학, 정진식의 경제학, 김석영의 영양학, 최희윤의 경영학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또한 최승주(1984)의 전자계산학, 이명희(1987)의 교육학, 1990년대는 권영숙(1991)이 한국미술분야 논문의 인용분석을 연구하였고 이어서 신은자(1993)가 정진식에 의해 수행된 바 있는 그의 논문 경제학문헌 반감기 연구와 비교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학문헌 이용율 감소현상과 장서폐기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최근에 연구동향과 관련된 연구로는 정동열(1993)은 도서관학(1970년~1992년), 정보관리학회지(1984년~1992년), 서지학연구(1986년~1991년)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서은경(1997)은 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의 정보관리학회지와 미국의 JASIS를 대상으로 1984년부터 1996년까지 정보학분야의 연구영역과 정보학 연구

의 타학문 주제의존도, 학제적구조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조찬식(1999)은 문헌정보학 연구 및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에서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정진식(2001)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고 학문의 연구영역과 타학문과의 주제의존도 및 문헌정보학의 지적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배순자(2001)는 국내 행정학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수행에 관한 분석적 연구를, 이명희(2002)는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기준년도를 설정해 그 경향을 파악해서 후속연구를 수행하거나 또는 연도별 증가추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연구결과

2.1 논문분석

2.1.1 핵심저자별 생산성

핵심저자별 생산성분석은 지금까지 ISA에 등재된 수록논문의 편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 모두다 논문 2편이상을 생산한 저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핵심저자순으로 각각의 저자목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1><표2>와 같다. 이상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심저자들이 생산한 논문 건수를 보면 한국의 경우, 최고 논문 4편에서 2편까지 생산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고 논문 4편에서 2편까지 게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저자별 생산성을 보면 가장 많이 논문을 게재한 저자로는 한국의 경우, Kim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어서 Jeong, Ro, Park[1], Park[2], Oh 순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Kobayashi, Nakamura, Yamazaki가 공히 4편의 논문으로 가장 많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Yamamoto, Kawasaki, Kanazawa 순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한국의 1위에 오른 Kim은 논문 생산성을 볼 때 광범하면서도 규칙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의욕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일본 1위에 오른 Kobayashi, Nakamura, Yamazaki도 한국의 Kim처럼 논문 생산성을 볼 때 아주 폭넓은 연구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1980년부터 최근 2001년까지 아주 광범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다른 특징은 이렇게 왕성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 대부분이, 소속기관이 대도시가 아닌 지방도시라는 점도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표1> 한국의 핵심저자별 분석

순위	저자	편수	저널명	타이틀	연도
1	Kim	4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A Comparative - Analysis of the Information sectors of South-Korea, Singapore and Taiwan	1996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공저)	A Comparative Study of Citations from Papers by Korean Scientists and their Journal Attributes	1998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공저)	Korean International Co-Authorship in Science 1994-1996	1999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A Bibliometric Analysis of Publications by the Chemistry Depart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992-1998	2000
2	Jeong	3	Knowledge Organization	Core International Journals of Classification Systems-an Application of Bradford Law	1994
			Library Quarterly	Characteistics of References i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s Literature	1995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Electronic Dewey vs. DDC 20 in print : an exploratory study in building numbers	1996
3	Ro	2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 Evalu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Ranking Algorithm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ull-Text Retrieval. I. On the Effectiveness of Full-Text Retrieval(v39. n2)	1988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 Evalu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Ranking Algorithm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ull-Text Retrieval. II. On the Effectiveness of Full-Text Retrieval(v39. n3)	1988
3	Park[1]	2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A Comparative Study of Major OPACs in Selected Academic Libraries for Developing Countries-User Study and Subjective User Evaluation	1997
			LIBRI	Comparing Major US OPAC Systems for Developing Countries	1997
3	Park[2]	2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Inferential Representation of Science Documents	1996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Relevance of Science Information : Origins and dimensions of relevance and their Implications to Information retrieval	1997
3	Oh	2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KORMARC-Its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 on the Library-Automation in Korea	1992
			Program-Automated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s	Comparative-Analysis of MARC in Korea, TAIWAN and JAPAN	1995

<표2> 일본의 핵심저자별 분석

순위	저자	편수	저널명	타이틀	연도
1	Kobayashi	4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s	Evaluation of queries based on the extended relational calculi	1981
			Japan Communications of the ACM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change	1985
			Bulletin of the Japan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One person library @.com era	2000
			Bulletin of the Japan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Comprehensive bibliographic information sharing system:information sharing system which handles various types of documents and records	2001
1	Nakamura	4	Bulletin of the Japan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Generation of a pseudothesaurus for information retrieval based on cooccurrences and fuzzy set operation	1990
			World Patent Information	Paperless plan of the Japanese patent office and its dissemination policy	1991
			Bulletin of the Japan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Role of special libraries and librarians in the digital library era	1999
			Bulletin of the Japan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It came to stay : a one-person library	2000
1	Yamazaki	4	Scientometrics	Refereeing system of 29 life science journals preferred by Japanese scientists	1995
			Bulletin of the Japan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Bibliometric study on chemical journals : centered around the citation analysis	1999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Journal citation maps in the field of life sciences by two-step model	2000
			Bulletin of the Japan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Special libraries still survive strongly in the information age	2000
4	Yamamoto	3	Medical Informatics	Design and use of medical record databases	1988
			Bulletin of the Japan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Merits and demerits of the Internet from the viewpoint of special libraries	2000
			Bulletin of the Japan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Preservation and weeding : a case in the Bankers Library	2001
5	Kawasaki	2	Libraries & Culture	Library history studies in Japan and the Japan Society for the study of Library History	1989
			Journal of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s	Recording and reproducing apparatus having, in addition to a recording medium, memory means for memorizing information reproduced from the recording medium	1991
5	Kanazawa	2	Collection Management	Organization theory and collection management in libraries	1991
			Serials Librarian	The present status of serials management in Japanese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1993

2.1.2 주제별 생산성

본 연구에서는 ISA에 등재된 수록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표3><표4>에서 각 주제분야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내용분석시 경우에 따라 복수의 주제항목에 관련된 내용은 가능한 한 비중이 좀 더 높은 단일 주제분야로 분류하였다.

한국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주제는 정보검색이 10.5%, 이어서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 8.8%, 웹정보원 8.8%, 분류・목록 8.8%, 도서관경영 8.8%로 똑같이 그 뒤를 이었고, 그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7.0%, 정보서비스・참고봉사 7.0%, 전문직(교육) 7.0%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역시 정보검색이 14.4%로 나타나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주제로 분석되었으며 이어서 디지털도서관 10.2%, 웹정보원 9.8%,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8.7%, 인용분석 7.9%, 도서관경영 6.8%, 분류・목록 6.4%, 인공지능 6.1%, 정보미디어 6.1%, 정보서비스 6.1%, 문헌정보학일반 3.1% 순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특기할 만한 것은 한국과 일본 모두 정보검색과 디지털도서관, 웹정보원과 관련된 연구주제들이 가장 빈번한 것을 볼 때, 현장에 근무하는 사서들에게 인터넷을 비롯한 웹정보원이 업무와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수가 있고, 인터넷을 기반으로한 이론추구보다는 시대적 요구에 의한 디지털도서관이나 정보센터로서의 역할로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3>한국의 주제별분석표

연구주제	게재논문
정보검색	6(10.5%)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	5(8.8%)
웹정보원	5(8.8%)
분류・목록	5(8.8%)
도서관경영	5(8.8%)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4(7.0%)
정보서비스・참고봉사	4(7.0%)
전문직(교육)	4(7.0%)
시스템설계구축	3(5.3%)
정보미디어	3(5.3%)
문헌정보학일반	2(3.5%)
이용(자)연구	2(3.5%)
계량정보학	2(3.5%)
연구방법론	1(1.7%)
색인・초록	1(1.7%)
기타	5(8.8%)
계	57(100.0%)

<표4>일본의 주제별분석표

연구주제	게재논문
정보검색	38(14.4%)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	27(10.2%)
웹정보원	26(9.8%)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23(8.7%)
인용분석	21(7.9%)
도서관경영	18(6.8%)
분류・목록	17(6.4%)
인공지능	16(6.1%)
정보미디어	16(6.1%)
정보서비스	16(6.1%)
문헌정보학일반	8(3.1%)
이용(자)연구	7(2.7%)
시스템설계구축	5(1.9%)
계량정보학	5(1.9%)
기타	21(7.9%)
계(%)	264(100.0%)

2. 1. 3 저널별 생산성

다음 <표 5><표6>은 ISA에 등재된 수록논문의 저널별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 모두 비교적 광범한 패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문을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는 저널은 한국의 경우,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가 4편으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Information Processing of Management와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가 똑같이 3편으로 다소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Bulletin of the Japan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이 64편으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어서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41편,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36편,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16편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5> 한국의 저널별 분석

저 널	편 수	비 율(%)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	7.0%
Information Processing of Management	3	5.3%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	5.3%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2	3.5%
Knowledge Organization	1	1.8%
Library Quarterly	1	1.8%
LIBRI	1	1.8%
Current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	1.8%
기타(41)	41	71.7%
계	57	100.0%

* 기타(41)는 각각 1편임

<표6> 일본의 저널별 분석

저 널	편 수	비 율(%)
Bulletin of the Japan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64	24.2%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41	15.5%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36	13.7%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16	6.1%
Libraries & Culture	10	3.80%
Library Journal	8	3.0%
Collection Management	6	2.3%
기타(83)	83	31.4%
계	264	100.0%

* 기타(83)는 각각 1편임

2. 1. 4 직급별·성별 생산성

다음 <표7><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급별을 보면 한국의 경우 시간강사보다는 교수, 교수보다는 전임강사, 전임강사보다는 부교수, 부교수보다는 조교수, 조교수보다는 일반직, 일반직보다는 연구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 교수보다는 시간강사, 시간강사보다는 부교수, 부교수보다는 전임강사, 전임강사보다는 조교수, 조교수보다는 일반직, 일반직보다는 연구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57명 중에 남자가 30(52.6%), 여자가 27(47.4%)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264명 중에 남자가 169(64.0%), 여자가 95(36.0%)명으로 분석되었다.

<표7> 한국의 직급별·성별 분포

	구 분	비 율(%)
직급별	교수	3(5.3%)
	부교수	5(8.7%)
	조교수	6(10.5%)
	전임강사	4(7.0%)
	시간강사	1(1.8%)
	연구원	24(42.1%)
	일반직	7(12.3%)
	기타	7(12.3%)
	계	57(100.0%)
성별	남	30(52.6%)
	여	27(47.4%)
	계	57(100.0%)

*교수직급에는 명예교수도 포함

<표8> 일본의 직급별·성별 분포

	구 분	비 율(%)
직급별	교수	11(4.2%)
	부교수	21(8.0%)
	조교수	33(12.5%)
	전임강사	26(9.8%)
	시간강사	14(5.3%)
	연구원	96(36.4%)
	일반직	42(15.8%)
	기타	21(8.0%)
	계	264(100.0%)
성별	남	169 (64.0%)
	여	95(36.0%)
	계	264(100.0%)

*교수직급에는 명예교수도 포함

2. 1. 5 최종 학위별 생산성

<표9><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최종학위를 조사해본 결과 한국의 경우, 총 저자 57명 중 31명이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그리고 박사학위의 취득 상황을 국내외별로 살펴보면 해외에서 취득한 경우가 국내에서 취득한 경우보다 3명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 총 저자 264명 중에 105명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박사학위 취득 상황을 국내외별로 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해외에서 취득한 경우가 국내보다 7명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9> 한국의 최종학위별 분포

학위구분	박사학위		박사과정수료		과정이수중		석사학위		학사학위	계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저자수	14	17	8	5	4	1	3	2	3	57명
(%)	(45)	(55)	(62)	(38)	(80)	(20)	(60)	(40)		
백분율	54.4%		22.8%		8.8%		8.8%		5.2%	100.0%

<표10> 일본의 최종학위별 분포

학위구분	박사학위		박사과정수료		과정이수중		석사학위		학사학위	계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저자수	49	56	32	28	19	28	17	22	13	264명
(%)	(47)	(53)	(53)	(47)	(40)	(60)	(43)	(57)		
백분율	40.0%		22.5%		17.8%		14.8%		4.9%	100.0%

2. 1. 6 소속기관별 생산성

<표11><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ISA에 등재된 수록논문의 생산성을 보면 한국의 경우, 가장 많이 논문을 게재한 기관은 J 대학교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H 대학교, E 대학교, KAIST, S 대학교, Y 대학교, K 대학교 순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 가장 많은 논문을 생산한 기관은 Tokyo Univ.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Keio Univ., Sugiyama Jogakuen Univ., Jissen Women's Univ., Hirosima Univ., Kinki Univ., Tsukyba Univ., Ibaraki Univ. 순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특기할 만한 것은, 한국과 일본 모두 소속기관별에서는 거의 대부분 대학이 아주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11> 한국의 소속기관별 분석

순 위	구 분	계
1	J 대학교	4
2	H 대학교	3
2	E 대학교	3
4	KAIST	2
4	S 대학교	2
4	Y 대학교	2
4	K^1 대학교	2
8	D 대학교	1
8	K^2 대학교	1
8	KAIST + 기타 기관	1
8	기타 2~3개 기관 공동	36
	계	57

<표12> 일본의 소속기관별 분석

순 위	구 분	계
1	Tokyo Univ.	28
2	Keio Univ.	26
3	Sugiyama Jogakuen Univ.	22
4	Jissen Women's Univ.	21
5	Hiroshima Univ.	19
6	Kinki Univ.	18
7	Tsukyba Univ.	16
7	Ibaraki Univ.	16
9	Surugadai Univ.	14
10	Shiseido Research Center	12
	기타 2~3개 기관 공동	62
	계	264

2. 1. 7 연도별 생산성

다음 <표13><표14>는 ISA에 등재된 수록논문을 통해 우리 문헌정보학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 생산성 분석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1985년까지는 불과 논문 생산성이 총 14편으로 아주 미미한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으나, 1986년부터 2000년까지는 아주 왕성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연도별 생산성과는 다소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1975년까지는 겨우 10편에 불과했었으나, 1976년부터 2002년까지 전반적으로 규칙적인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최고의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특기할 만한 것은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시기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똑같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시기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정착기를 맞아 보다 다양한 학문에의 열의로 인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표13> 한국의 연도별 분석

연 도	편 수	비 율(%)
연도미상	1	1.8%
1971-1975	3	5.3%
1976-1980	4	7.0%
1981-1985	6	10.5%
1986-1990	10	17.5%
1991-1995	13	22.8%
1996-2000	19	33.3%
2001-2002	1	1.8%
계	57	100.0%

<표14> 일본의 연도별 분석

연 도	편 수	비 율(%)
연도미상	4	1.5%
1971-1975	6	2.3%
1976-1980	22	8.3%
1981-1985	19	7.2%
1986-1990	52	19.7%
1991-1995	64	24.2%
1996-2000	79	30.0%
2001-2002	18	6.8%
계	264	100.0%

2. 1. 8 연령별 생산성

다음 <표15><표16>에서는 저자들의 연령층 분포현상을 분석해 보기 위해 연령별 생산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논문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 연령층을 보면 한국의 경우, 40대가 24편(42.2%)으로 최고의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어서 30대가 15편(26.3%), 50대 10편(17.5%), 60대 7편(12.3%)의 순으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40대가 102편(38.6%)으로 아주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50대가 68편(25.8%), 30대 59(22.3%), 60대 27편(10.3%) 순으로 논문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는, 한국과 일본의 모든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보다 다양한 학문적 기반 위에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여진다.

<표15> 한국의 연령별 분석

연 령	편 수	비 율(%)
20대	1	1.7%
30대	15	26.3%
40대	24	42.2%
50대	10	17.5%
60대	7	12.3%
계	57	100.0%

<표16> 일본의 연령별 분석

연 령	편 수	비 율(%)
20대	8	3.0%
30대	59	22.3%
40대	102	38.6%
50대	68	25.8%
60대	27	10.3%
계	264	100.0%

2.2 한국과 일본의 인용문헌 분석

인용이란, 과거의 연구자가 기존의 연구 또는 현재 발표되는 연구에 대해 기여한 지적인 공헌을 인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용정보를 통하여 시대적인 연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분야의 인용빈도를 측정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논문을 선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인용문헌 분석이란, 특정 전문지식에 대한 계량학적 접근수단으로서 인용하는 문헌과 인용된 문헌과의 관계성 규명을 통해 특정주제를 형성하는 제반 현상을 밝히는 것이다. 즉 인용문헌 분석을 통해 당해 분야 연구자들의 제반 연구행태 및 기여도, 핵심저자 도출, 대상 학술지의 특성 및 영향력, 문헌형태별·주제별·학문분야별 문헌의 반감기, 연도별 인용형태 추이, 기관별 연구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의하여 얼마나 인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결국 이를 통해 핵심문헌이나 핵심저자는 물론 인용문헌의 반감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인 ISA에 수록된 문헌에 대한 별도의 인용분석도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석대상 문헌에서 인용한 문헌, 소위 Citing literature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1 인용문헌의 형태별 / 연도별 분석

분석대상 문헌에서 한국과 일본의 인용한 문헌을 형태별 /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17>과 같다.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용한 문헌의 형태별 분포를 보면 한국의 경우, 학술지가 전체의 547건(75.5%)으로 가장 높은 인용율을 보였고 이어서 단행본 77건(10.6%), 회의자료 47건(6.5%), 학위논문 32건(4.4%), 보고서 7건(1.0%), 표준 및 규격 7건(1.0%) 순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료에는 특허와 전산코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단행본에서만 점유율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의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술지가 전체의 2,553(70.8%)으로 가장 높은 인용율을 보였고 이어서 단행본 627건(17.4%), 회의자료 137건(3.8%) 순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인용한 문헌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특징적인 점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똑같이 1991~1995년도의 문헌이 가장 최신문헌인 1996~2002년도의 문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전의 문헌은 연도를 소급할수록 인용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도미상을 보면 한국은 1건, 일본은 12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17> 한국과 일본 인용문헌의 형태별 / 연도별 분석

	형태 / 연도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보고서	회의자료	표준 및 규격	기타자료	계(%)
한국	2002~1996	19	8	104	2	31	2	3	169 (23.3%)
	1995~1991	23	12	159	2	5	2	3	206 (28.4%)
	1990~1986	13	6	103	2	5	1	0	130 (17.9%)
	1985~1981	8	3	71	1	4	1	0	88 (12.4%)
	1980~1976	7	2	55	0	1	1	0	66 (9.1%)
	1975~1971	7	1	55	0	1	0	0	64 (8.8%)
	연도 미상	0	0	0	0	0	0	1	1 (0.1%)
	계	77 (10.6%)	32 (4.4%)	547 (75.5%)	7 (1.0%)	47 (6.5%)	7 (1.0%)	7 (1.0%)	724 (100.0%)
일본	2002~1996	175	31	496	9	48	17	25	801 (22.2%)
	1995~1991	195	52	702	14	52	21	15	1,051 (28.4%)
	1990~1986	105	25	475	10	15	5	6	641 (17.8%)
	1985~1981	80	12	350	5	10	5	0	462 (12.8%)
	1980~1976	37	8	300	0	5	5	4	359 (9.9%)
	1975~1971	33	5	230	3	5	0	3	279 (7.7%)
	연도 미상	2	0	0	2	2	1	5	12 (0.3%)
	계	627 (17.4%)	133 (3.7%)	2,553 (70.8%)	43 (1.2%)	137 (3.8%)	54 (1.5%)	58 (1.6%)	3,605 (100.0%)

2.2.2 인용문헌의 국내외 구분

<표17>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는 학술지와 단행본 및 회의자료를 국내외별로 다시 상세하게 분석하면 다음 <표18>과 같다.

<표18>을 통해 살펴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학술지, 단행본, 회의자료 모두 다 최신문헌 보다 오히려 1991~1995년도의 문헌을 더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비율로 살펴보면 학술지는 국내와 국외의 비율이 (약 3:7 정도), 단행본은 국내와 국외 비율 (약 4:6 정도), 회의자료의 국내외 비율(약 6:4 정도)로 나타나 회의자료만 빼고 대부분이 국외문헌을 더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총 724건 중에 671건, 일본은 3,605건 중에 3,317건으로 분석되었다. 환언하면 학위논문, 보고서, 표준 및 규격자료를 제외한 이들 자료가 절대적인 점유율 671건을 보여줌으로써 아주 높은 인용율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KCI

<표18> 한국과 일본 인용문헌의 국내외 구분

	구분		2002 ~1996	1995 ~1991	1990 ~1986	1985 ~1981	1980 ~1976	1975 ~1971	계(%)
한국	학술지 (547)	국내	31	50	23	22	20	23	169 (25.2%)
		국외	70	102	73	45	43	43	376 (56.0%)
	단행본 (77)	국내	8	9	6	5	4	2	34 (5.1%)
		국외	11	11	9	7	4	3	45 (6.7%)
	회의자료 (47)	국내	7	6	6	5	3	2	29 (4.3%)
		국외	3	4	5	4	1	1	18 (2.7%)
	계		130 (19.4%)	182 (27.1%)	122 (18.2%)	88 (13.1%)	75 (11.2%)	74 (11.0%)	671 (100%)
일본	학술지 (2,553)	국내	155	243	106	107	98	117	826 (24.9%)
		국외	350	498	366	220	217	213	1,864 (56.2%)
	단행본 (627)	국내	40	45	30	25	20	10	170 (5.2%)
		국외	55	57	45	35	20	15	227 (6.8%)
	회의자료 (137)	국내	33	30	30	25	15	10	143 (4.3%)
		국외	12	20	25	20	5	5	87 (2.6%)
	계		645 (19.5%)	893 (26.9%)	602 (18.2%)	432 (13.0%)	375 (11.3%)	370 (11.1%)	3,317 (100.0%)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ISA에 수록된 한국과 일본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논문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연구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저자별 생산성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Kim이 총 4편의 논문을 게재해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역시 총 4편의 논문을 게재한 Kobayashi, Nakamura, Yamazaki가 공동으로 최고의 생산성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연구주제분야는 한국의 경우, 정보검색이 10.5%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주제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디지털 도서관(전자도서관) 8.8%, 웹정보원 8.8%, 분류・목록 8.8%, 도서관경영 8.8%,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7.0%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역시 정보검색이 14.4%로 나타나 가장 빈번하게 연구되었으며, 이어서 디지털 도서관 10.2%, 웹정보원 9.8%,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8.7%, 인용분석 7.9% 순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저널별 생산성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가 4편으로 최고의 생산성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경우, Bulletin of the Japan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이 64편으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여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직급별・성별 생산성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먼저 직급별로 보면 연구원이 가장 높은 점유율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자가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직급별로 보면 역시 연구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자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최종학위별 생산성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경우,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소속기관별 생산성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J 대학교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경우 가장 많은 논문을 생산한 기관은 Tokyo Univ.으로 분석되었다.

일곱째, 연도별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 학자들이 가장 왕성하게 연구한 시기는 똑같이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기로 분석되었다.

여덟째, 연령별 생산성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40대가 42.2%로 최고의 생산성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40대가 38.6%로 나타나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홉째, 인용문헌 분석을 살펴보면, 형태별 분포는 한국과 일본 거의 비슷하게 학술지가 가장 높은 인용율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단행본, 회의자료, 학위논문, 보고서, 표준 및 규격 순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용한 문헌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한국과 일본 똑같이 1991~1995년도의 문헌이 가장 최신문헌인 1996~2002년도의 문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구분은 회의자료만 빼고 거의 대부분이 국외 문헌을 더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내외 문헌정보학이 세계 속의 문헌정보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인용분석의 결과를 연구비 지원 등 각종 포상과 연계시킴으로써 국내학술지에 보다 우수한 논문이 많이 투고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결국은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학술지에 수록될 논문의 질적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학술지를 영문으로 발행하거나 적어도 초록만이라도 영문으로 만들어 여러나라의 주요기관이나 도서관, 정보센터 등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학자들에 의해 많이 인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학자들에 의해 많이 인용됨으로써 국내 문헌정보학의 위상이 그 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태수, 남영광, 최석두. 1999.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을 위한 데이터 요소의 기술형태 분석 : 정보관리학회지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6(2) : 183 - 199.

남태우, 최희곤. 1998. 문헌정보학 텍스트(단행본)의 내용분석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3) : 23 - 44.

배순자. 2001. 국내 행정학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수행에 관한 분석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1) :123 - 141.

서은경. 1997. 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 정보관리학회지와 JASIS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4(1) : 269 - 291.

이명희. 2002.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 287 - 310.

정동열 1993.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개발에 관한 연구.『정보관리학회지』 10(2) : 23 - 41.

정진식. 2001.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 1996~20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3) : 55 - 78.

조찬식. 1999.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61 - 65.
최희곤. 1999. 『한국 문헌정보학분야 단행본저작의 내용분석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최희곤. 1999.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분석. 『정보관리학회지』, 16(3) : 137 - 158.
최희곤. 2000. 『한국 문헌정보학의 이해』. 서울 :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사.
최희곤. 2001. 국제학술지(SSCI)에 등재된 논문을 통한 국내 문헌정보학자들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2) : 5 - 22.
한복희. 1977. 원자력학분야 학술잡지(국내)의 인용분석. 『도협월보』, 18 : 2 - 6.
Atkins, S. E. 1998. "Subject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975 - 1984," *Library Trends* 36(1) : 633 - 658.
Borko, H. 1968. "Information science." *American Documentation*, 13(1) : 3 - 5.
Cline, Glorid S. 1981. "Application of Bradford's Law to Citation Data",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2 : 53 - 61.
Diodato, V. 1994. *Dictionary of Bibliometrics*. New York, NY : Haworth Press.
Feehan, P. E. et al. 1987.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 an analysis of the 1984 Journal Literatur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9(2) : 173 - 185.
Hulme, E. W. 1923. *Statistical Bibliography in Relation to the Growth of Modern Civilization*. London : Grafton.
Jaervelin, K. & P. Vakkari. 1990.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2(4) : 395 - 421.
Peritz, Bluma C. 1981. "Citation Characteristics in Library Science : Some Further Results from a Bibliometric Survey", *Library Research* 3 : 47 - 65.
Saracevic, Tefko & Lawrence L. Perk. 1973. "Ascertaining Activities in a Subject Area Through Bibliometric Analysis", *JASIS* 24 : 120 - 134.
Schorr, Alan Edward. 1974. "Lotka's Law and Library Science", *Reference Quarterly* 14 : 32 -33.
Sellen, Mary K. 1984. "Bibliometrics in Information Science : A Citation Analysis of Two Academic Library Journal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5(2) : 121 - 132.
Small, H. G. 1973. "Cocitation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 A New Meas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Documents", *JASIS* 24 : 265 - 269.
Smith, Linda C. 1981. "Citation Analysis", *Library Trends* : (sum) 83 - 105.
White, H. D. & Griffith, B. C. 1981. "Author Cocitation : A Literature Measure of Intellectual Structure." *JASIS*, 32(3) : 163 - 171.